

광양시, 추석 전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주력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 전통시장방문 등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가 잘사는 광양을 만들기 위한 실물경제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2008년 도입 이후 이번 달까지 모두 220억 원이 판매되어 골목상권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개인은 월 50만 원 연 6백만 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며, 법인(단체)은 구매한도가 없다.

지역내 73개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카드 이용과 구매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매년 지역발전 공헌사업에 나서 지난해 상품권을 35억 원을 구매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상품권카드는 5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NH농협은행 광양시청출장소와 광양읍 농협본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0)와 농협(☎061-797-349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와 포스코광양제철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등 경기 상황을 체험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광양5일시장, 옥곡시장, 중마시장, 광양시장 방문하여 필요한 제수음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도 듣는다.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용자추천과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상반기까지 60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다.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지점(☎061-794-3862)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경영컨설팅 사업 결과 20개 업소 중 15개 업소 매출이 크게 올라 기분 좋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매년 20개 업소를 선정하여 경영개선 컨설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제공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화장실, 벽지, 테이블 등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로 20개 업소를 선정하여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시는 내년에는 시설개선사업을 50개 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정편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내수 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광양 인심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 안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에서도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여수시, 5년 연속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해안관광도시 부문 수상

여수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안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8일 오전 서울시 흥은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안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설문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선호도, 방문경험, 향후 방문 최우선도, 만족도 등이었다.

조사 결과 여수시는 부산과 제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수는 선호도와 향후 방문 최우선도, 만족도 등 3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여수는 지금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2019 순천만 둘레둘레 걷기행사' 개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코리아둘레길은 우리나라 외곽 4500km를 연결하는 걷기여행길로 해파랑길(동해안 구간), 남파랑길(남해안 구간), DMZ평화의 길, 서해안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천시 구간

은 남파랑길 1700km 중 해동면 와온마을에서 별량면 용두 마을까지 약 29.4km가 해당된다.

이들간 진행되는 이번 걷기행사는 세계5대 연안습지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등록된 순천만을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생태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면서 성취 다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해빈, 용산전망대, 순천만생태공원, 인안방조제 등의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순천시와 한국체육진흥회 산하 한국걷기연맹 및 순천시걷기연맹이 지역 고유성을 보유한 품격있는 걷기여행길 홍보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걷기 동호인 및 동호인 단체 회원 등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걷기행사는 사전 참가신청으로 진행된다. 사전접수는 (사)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www.walking.or.kr) 및 전화접수(02-2274-7077)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순천시 관광기획팀(061-749-5790)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화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

화순군이 최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날 화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화순읍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배남철)는 사업 추진 방향 모색 등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추진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 25여 명은 곡성군 옥과면과 중남급산군 급산읍에서 다양한 사례를 둘러봤다. 참가자들은 경관개선 등 각종 중심지 개선 사례, 청년몰 운영 사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주민의 참여 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배남철 추진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이 주민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화순읍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화순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마을리더 아카데미' 수료식

담양군이 지난 27일 월산면 물구십리권역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공동체 리더들의 기초소양 강화를 위한 '담양군 마을리더 아카데미'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생과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참여했으며, 교육생 25명이 공동체 비전 및 향후 활동 발표 후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진행된 마을리더 아카데미에서는 현장능력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과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리더의 기초 소양 강화 교육

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및 공동체 유형별 비전 찾기 등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강연뿐 아니라 상품 및 체험 개발, SNS 마케팅, 식품위생법 및 HACCP 인증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6차 산업 우수사례를 위한 현장견학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교육에 성실히 임해 주신 수료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9월부터 진행되는 마을리더 아카데미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욱 기자

"아름다운 칠산바다 공짜로 감상하세요"

'영광 천일염 · 젓갈 · 갯벌축제' 기간 무료개방



영광군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영광 천일염 · 젓갈 · 갯벌축제' 기간 동안 칠산타워를 무료개방 한다.

군은 축제 첫 날인 30일 송가인 등 인기작가가 출연하는 MBC축하쇼(송가인 특별출연), 불꽃쇼 등이 20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예상되어 밤10시까지 칠산타워 전망대를 연장운영하고 남은 2일

간 무료로 정상 운영한다.

영광 칠산타워는 높이 111m로 전남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영광 해양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하게 펼쳐진 칠산 앞바다와 주변 육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최근 축제와 추석명절 칠산대교 임시개통을 앞두고 전망대 유리창과 스카이워크(투명바다)를 깨끗이 정비하여 보다 신명나게 칠산바다와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 해저면 도로포와 영광 염산면 항화도를 잇는 칠산대교가 추석 명절기간 임시 개통된다"며 "임시 개통기간 중 칠산타워를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지하수 보호 위한 관련업체 실무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27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하수의 오염예방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대표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토지하수정보센터 김지욱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며, 한편 오염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관정의 이용종류(폐공)에 따른 원상복구 방법 등 지하수 관련 이론과 지하수법, 인허가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법 해설과 행정적 주요절차, 질의회신 사례, 지하수개발의 시공 및 폐공에 따른 주요 공법 등을 집중 교육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성서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